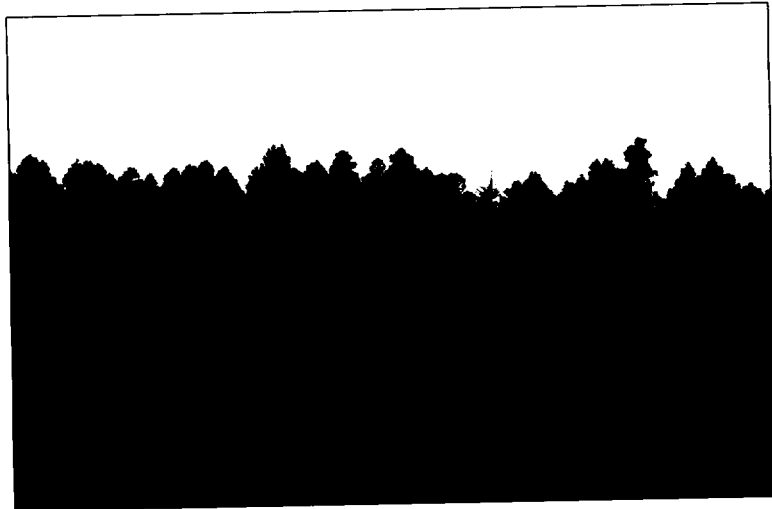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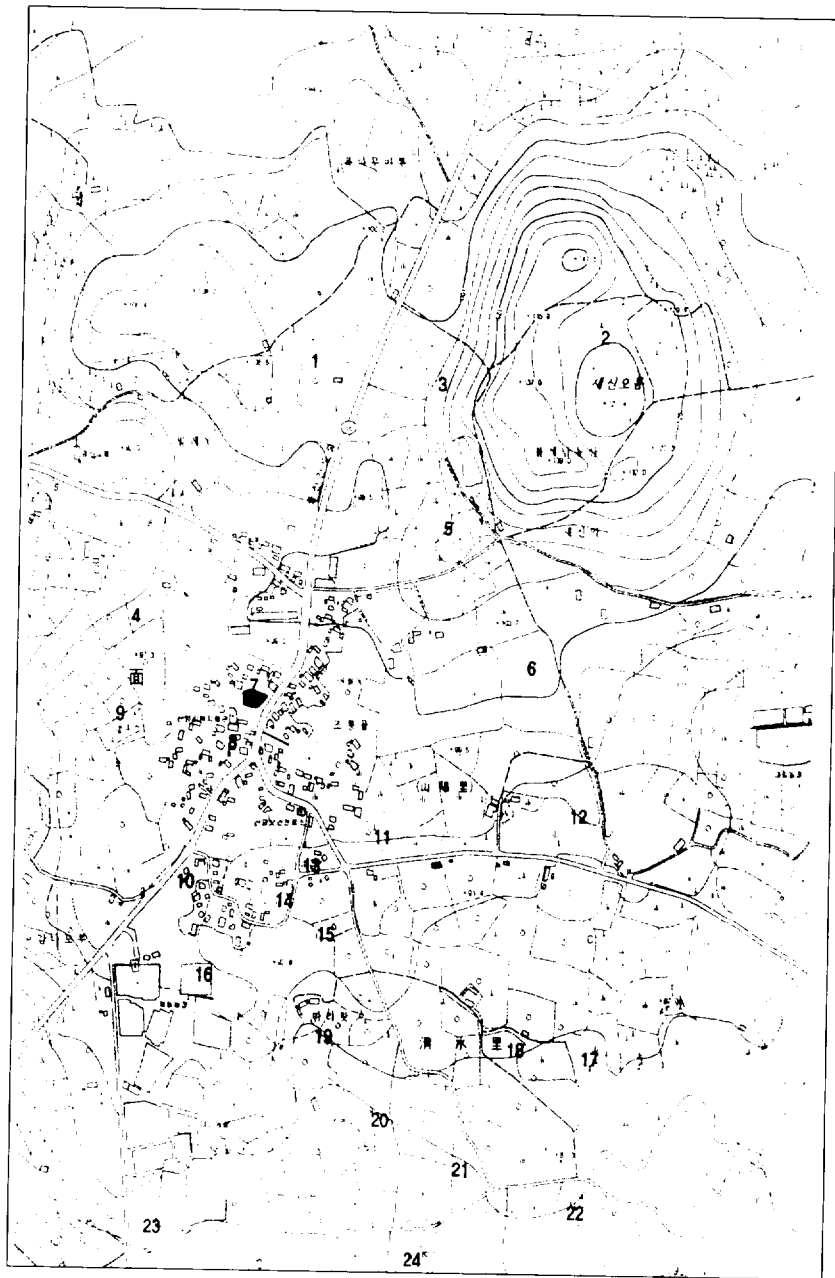
(濟州市 翰京面 山陽里)

2008년 6월 25일 ~ 6월 27일 조사

▣ 사회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산양리 지도



사회배경

차 례

1. 마을 개관
2. 마을 현황
3. 기와 제작
4. 산양리와 4·3

이번 산양리 학술조사에서 사회배경 조사반에서는 마을 정보와 함께 자연환경, 인구, 산업, 교통 등을 통한 마을 현황, 문화, 4·3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얻었으며, 산양리 이장님의 협조로 얻은 문헌을 참고했다.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서 마을의 변화나 주요 농업, 4·3관련 정보를 얻었으며 문헌에서는 지리, 인구 등 기본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1. 마을 개관

산양리는 당초 청수리에 속해 있다가 1919년 3월에 청수리가 1, 2구로 구분되어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 자룡동, 다리왓동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하다가 1956년 7월 청수리로 2구에 속해있던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자룡동, 다리왓동)으로 단일부락을 형성 독립하면서 산

양리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¹⁾

산양리는 일제강점기 전에 경주김씨 집안에서 와서 살다보니 마을이 되었다. 현재 이 자리는 농사를 할 수 없는 습지였다. '여뀌'라는 풀이 많이 나는 곳이라 하여 마을이름이 여뀌못이라고 지명이 되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연꽃을 그 못에 심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연화동으로 이름을 변화하였다.

2. 마을 현황

(1) 자연환경

마을내의 특색있는 자연환경으로는 여뀌못과 조록물이라 불리는 연못을 뽑을 수 있다. 이 두 연못은 마을의 형성과정에서부터 마을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산양리 연화동은 여뀌못과 현 노인회관 터를 비롯해 마을 전체부분이 습지였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런 습지를 매워 만든 마을이 바로 현재의 산양리 연화동이다. 이 중 여뀌못은 옛 연화동 사람들이 두 못으로 나누어 한 곳은 식수(근물), 목욕물로 사용되었다. 또 조록물이라 불리는 곳 또한 사람들이 여뀌못과 같이 식수와 목욕시 사용하는 물로 사용했다고 한다. 조록물의 경우 그 주변의 질 좋은 흙을 이용한 산업이 눈에 띈다. 예전에는 이 근방의 흙을 이용한 기와 산업이 발달하였다. 현재에는 그 주변은 기와산업이 쇠퇴하고 많은 하우스에서 여러 작물들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제주도·한국농촌공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2007. 10.) p. 17

(2) 인구²⁾

<산양리 인구 및 가구수>

인구수 (명)			가구수 (호)		
계	남	여	계	농가	비농가
523	264	259	193	154	39

<연령별 인구분포>

계		0 ~ 14세		15 ~ 64세		65세 이상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인구수	%
523	100	72	13.8	340	65.0	111	21.2

(3) 산업³⁾

이 마을에서의 농사는 복합적인 농사가 이뤄지고 있다. 토질이 좋기 때문에 아무 농사라도 잘 맞는다고 한다. 비율은 감귤이 50% 정도로 마을에 있는 하우스 대부분이 감귤이다. 보리는 주로 창고 쪽에 많이 재배한다. 예전에는 고구마를 많이 재배했지만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고구마를 재배하면 농협에서 전분을 만들기 위해 사들였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와 타산도 맞지 않고 인건비도 비싸 지금은 재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보리, 조, 고구마 농사를 주로 하였고 사람 손으로 주로 하였지만 지금은 기계화가 되면서 상품작물인 맥주보리, 감귤 등을 재배한다.

2) 위의 책. pp. 21 ~ 23.

3) 위의 책. pp. 31 ~ 32

<농가 및 농경지 현황>

가구수 (호)			면 적 (ha)			
계	농가	비농가	계	전(과수원)	임야	기타
193	154	39	632	368	189	75

<마을별 주요작목 재배 현황>

품목명	재배면적(ha)		수확량(ton)		유통판매
	'01	'06	'01	'06	
감귤	100	73	820	598.6	중간상인, 계통출하
한라봉	-	6	-	270	
콩	150	144.5	360	346.8	중간상인, 계통출하
보리	150	144.5	270	260.1	농협계통출하
마늘	55	70	742.5	945	중간상인, 계통출하
무	105	74.5	1,575	1,117.5	"
양파	105	74.5	6,300	4,470	"

<축산규모>

한우		젓소		양계		돼지		기타	
농가	규모	농가	규모	농가	규모	농가	규모	농가	규모
8	192					2	310	1	500

(4) 교통

예전에는 어느 장소든 도보로 이동하였다. 모슬포나 고산리에 있는 오일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려 할 경우 대부분이 도보를 사용하였으며 제주시

나 서귀포까지 갈 경우에도 걷는 것이 유일한 교통수단이였다.

현재는 교통의 발달로 한경면 전체를 도는 읍면순환버스를 활용해 모슬포나 고산리에 있는 오일장을 가고 있다.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갈 경우에는 자가용, 고산리를 지나는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5) 주택

4·3 이전에는 마을에서 기와를 주로 만들며 생활을 했었기에 기와집이 다수 차지하였다. 그러나 4·3 이후 마을 주민들이 고산리로 대피해 1년여 간 살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집이 불타 가난한 상태에서 초가집을 지어 살게 되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미공법이 시행되고 나서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게 되었다. 이때 사람들이 양옥집이나 기와집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아래의 현황과 같이 이르렀다.

<주택현황>

계		한옥		양옥		개량한옥		기타	
193	221	68	43.5	49	23.6	66	15.9	10	10.7

(6) 마을의 의식주생활과 그 변화

박정희 시절, 미공법(개간법)으로 인해 밀가루, 강냉이 등이 무수히 들어왔다. 이 때 신부가 천주교를 포교하며 명부에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는 강냉이를 주면서 포교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배고픔에 시달린 주민들은 명부에 이름을 올려 배급받은 강냉이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삼, 팽이 등 농기구를 배분하면서 전부 개간을 하기도 하였다.

4·3 이후 전소되면서 부엌과 방으로 나뉘었던 집 구조가 하나로 합쳐지는 구조가 되었다. 밑바닥에 보리나 짚을 깔아서 살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도 생겼다.

미공법 그 무렵이 가장 풍년이었을 때였다. 이 때 이중곡가제를 실시하였다. 이중곡가제란 우리농산품은 정부에 팔고 정부는 7~8만원에 팔 정도로 더 싸게 팔아주는 곡가 제도를 말한다. 그 이후에도 제주도의 존망정신을 발휘하여 식량을 미리 저장을 해두면서 먹고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예전에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지 않던 도로도 이제는 아스팔트가 다되었다. 또한 예전에는 봉천수를 주로 식수원으로 사용하였지만 이제는 수돗물이 다 들어온다. 봉천수는 여뀌못을 반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한쪽은 목욕하는 물 한쪽은 마시는 물로 사용하였다.

3. 기와 제작

산양리에는 조롱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근방에 흙이 좋아 이 근처에서 기와공장이 성행하였다. 2007년에는 산양리 주민들이 제주시를 대표하여 탐라문화제에 “조롱물 기와 역사”라는 제목으로 기와 제작을 재연하는 공연을 하기도 할 만큼 기와 제작 문화가 있는 곳이었다.

기와를 손실 없이 만들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 당시 기와집이 많았었는데 4·3때 많이 전소되었다. 현재 기와 터는 남아있지 않다.

<기와 만드는 법>

제보자: 박성희(74세·남)

1. 흙(사토)를 30cm정도를 버리고 그 밑부터 2~3m 깊이 판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혼합된 흙이 찰흙.
2. 찢득찢득한 흙이 나올 때까지 떠 내친다.

3. 그 흙을 공장으로 가져와서 물을 준 후 밤새 흙이 물을 짜먹을 때까지 둔다.
4. 사람이 발로 밟은 후 틀에 논다. 그것을 “관짓는다.”라고 한다.
5. 못을 박고 철사를 묻는다. 철사는 본을 뜨기 위해 철사를 묻는다. 빠진데 하나 없이 흙을 밟고 그 철사를 밑에서 위로 들어내면 흙이 나누어진다. 철사를 길이와 폭을 일정하게 자르기 위해 cm자로 해서 흙을 일정하게 나눈다.
이때, 마목(2m이상)을 튼튼한 것으로 4개를 박아둔다. 그 이유는 철사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6. 잘라낸 흙을 햇볕이 들지 않도록 그늘 있는 곳인 움막에다 둔다. 햇볕에 두면 기와가 깨지기 때문이다.
7. 움막에 두었던 기와를 가마에다가 둔다. 가마는 1000°C 이상이다.
8. 그것을 기계에 놓으면 틀로 휘게 만든다.
9. 기계에서 나온 기와를 움막에서 말린다.
10. 700°C 이상 하루 동안 굽는다. 이 때 연기를 막기 위해 구멍을 흙으로 막는다.
11. 구멍을 한꺼번에 열게 되면 과열되기 때문에 공기는 차차 들어갈 수 있도록 3일 정도 열을 식힌다.

4. 산양리와 4·3

<강형석 씨(66세, 남) 인터뷰>

문: 4·3사건때 월광동으로 되었던 해신디 4·3피해 이신가예?

답: 많주. 사람이 많이 죽어서. 무서워서 도망가당이네 총으로 쏘아볼면. 산재오름 같은데 도망가신가?
경찰도 무섭지 산사람도 무섭지 갈 데가 없단 말이여. 고방이네 산

단말이여. 폭도다 행이네 짝 쏘아붙고. 경찰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 무서워서 어디갔다왔냐고 하면 얼어붙고.

문: 4·3전에는 월광동 쪽에 마을이 있었던 거마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원래 더 밀이어신디 올라온 거 아니예?

답: 여기 살다가 고산 내려와서. 고산 해변으로 내령와당 여기 집들은 전부 불태워 불었더라고, 경찰이 해신지 누가 한지는 몰라 경행 1년 살양이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 불태워부난 자그마치 집짓엉 살아. 여기 근방 전부. 다 불탄. 해변만 아니지.

<박성희 씨(74세, 남) 인터뷰>

청수 1구에 문씨집안이라고 있었는데, 4·3때 남로당의 집안으로 한독당(경찰)의 반대세력이었다. 산사람을 피해 고산에서 살다가 4~5년 후 재건명령이 와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됨. 와보니 기와집이 거의 다 전소되었다. 동네 청년, 처녀들이 다 죽었다. 1945년 해방이후 공산주의가 나타났다. 산사람(남로당) / 해안사람 (일반인) 중산촌에서는 산놈한테 잡혀간다고 한 것이 고산으로 가라고 해서 살다가 다시 와서 재건하게 되었다. 산사람 방지하기 위해 돌담이 있었는데 그 돌을 가져다가 성을 쌓아 산사람 못 들어오게 부락마다 성을 쌓았다. 산사람들은 나중에 배고플 때쯤에나 소나 식량을 탈취해갔다.

<4·3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한독당의 세력이 커지면서 부락을 지키기 위해 쌓았던 성의 크기 역시 커졌다. 처음 쌓은 성벽은 높고 넓지 않게 지었으나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그 성벽 외곽 지역으로 성을 낮게 더 쌓게 되었다. 3개의 성벽을 쌓았는데 지금 산양리에 남아있는 성벽은 가장 외곽에 쌓은 낮은 성벽 중 일부만이 남아있다. 밭농사를 지으면서 성벽은 거의 허물어져 있고, 현재 남

은 성벽은 주민의 과수원에서 경계로 쓰고 있는 외곽에 쌓은 성벽 중 일부이다.

■조사자: 양원혁(04), 박중건(07), 양준석(08), 임미애(08), 정현주(08)